

10월 18일(월) / 눅 13-15

▶ 내용요약 :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하셨다. 또한 안식일에 열여덟 해 동안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셨다. 14장에서는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함을 교훈하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다. 이후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시기 위해 탕자의 비유를 더하셨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1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 )사람이 (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 생각하기 :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둘째 아들이 아닌 두 아들의 아버지이다.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죄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다.

10월 21일(목) / 눅 22-24

▶ 내용요약 : 누가복음 22장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언약의 성찬을 베푸셨다. 이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때 가롯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심문을 받으셨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후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베푸셨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

▶ 질문 :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육식(정오 12시)쯤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3장)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내자.

10월 24일(일) / 요 7-9

▶ 내용요약 :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셨다. 육신의 형제들도, 무리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의심하며 수군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다. 한편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를 모욕했다.

10월 19일(화) / 눅 16-18

▶ 내용요약 : 누가복음 16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신다. 한편 17장에서는 용서와 믿음, 종으로써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교훈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셨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 이후 물질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부자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 질문 :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가? (16장)

▶ 생각하기 :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돈에 매이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속지 말자!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가까운 형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온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더 깊은 묵상을 위해 딤후 6:1-10을 읽으라).

10월 22일(금) / 요 1-3

▶ 내용요약 : 요한복음 1장은 말씀(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 한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다. 이후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한편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님의 신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3장)  
“하나님이 ( )을 이치럼 (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생각하기 :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누리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누리자.

8장에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 이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물러가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후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게 하심으로써 그의 병을 고치셨다. 이에 맹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그분 앞에 절하며 믿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정죄했다.

10월 20일(수) / 눅 19-21

▶ 내용요약 :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결단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함을 교훈하셨다. 한편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시험에 지혜롭게 답함으로써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헛된 것임을 드러내셨다. 이후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고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헌금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 질문 : 당시 종교지도자들 중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누구인가? (20장)

▶ 생각하기 :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자.

10월 23일(토) / 요 4-6

▶ 내용요약 :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교훈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에 그 여자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한편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로 인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후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이튿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몰려가서 떡을 요구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다.

▶ 질문 :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못은? (5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분명 표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 자체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기대하자. 우리의 가장 큰 선물과 기적은 예수님이다.

▶ 질문 :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8장)

▶ 생각하기 : 맹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정죄를 당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의사이시고, 죄인들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